전국 애견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명나는 판이 충견의 고장 임실군 오수에서 열린다.

전국 애견인들의 축제 열린다

임실 의견문화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애견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명나는 판이 충견의 고장 임실군 오수에서 열린다.

임실군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오수면 의견공원 일원에서 '애견과 함께하는 2판4판' 이라는 주제로 제33회 의견문화제를 개최한다.

의견문화제는 주인의 목숨을 구하는데 헌신한 오수개의 정신을 알리고, 반려애견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된 전국 애견인들의 만남의 장이다.

반려견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열리는 의견문화제는 전국 애견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오수를 대한민국 대표 애견문화도시로 각인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에 열리는 의견문화제는 반려견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5일 어린이 날을 전후로 어린이와 애견이 한데 어우러지는 '재미진 판'을 한껏 선사한다.

행사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전야제는 오수의견의 주인인 지사면 영천리 김개인 생가에서 농악의 터울림과 잔치 한마당으로 펼쳐진다.

5일 어린이 날에는 개나무골 오수 동네한바퀴 퍼레이드행사를 비롯해 의견가요제, 한국 그레이하운드 경견대회, 전국 수제시료 경진대회, 반려견 콘테스트 등 의견문화제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개나무골 동네한바퀴 애견퍼레이드 행사에는 서울에서 애견열차를 타고 온 애견동호인을 대상으로 제35사단 군악대, 풍물공연단과 함께 퍼레이드를 하며, 트랙터와 경운기 체험도 준비돼 있다.

6일에는 한국 그레이하운드 경견대회와 예쁜개 선발대회 등 반려견과 함께 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또한 파티파티 청춘파티를 진행해 애견인들만의 신나는 파티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인디밴드공연과 버스킹도 진행되면서 축제장 열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확대 '청신호'

순창군, 5개단체 GAP 단체 인증 안정성 확보

순창군 금과면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인증을 획득해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유통망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최근 금과면 태이친환경영농농조합법인, 서순창농협연합회, 금과과수유통영농조합법인, 금과복숭아작목반, 금과딸기작목반이 농산물우수관리 단체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단체에 속한 농가만 234농가다.

인증면적은 총 245ha로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는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생산, 수확,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번 단체인증은 소비자들에게 작목반 등 단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다.

당연히 대형마트 등 유통망을 확대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군측은 이번 농산물우수관리 단체인증으로 지역 농산물의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의 교육 효과 '톡톡'

순창군이 귀농 걸음마 단계부터 완전한 정착에 이르기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하는 장기교육이 효과를 거두며 순창군이 귀농 성공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군은 지난해 618세대 1,010명이 순창으로 귀농·귀촌 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해에도 4월말 현재 귀농귀촌인은 173세대 338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큰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성공사례로 뽑히고 있는 것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6주간 장기교육이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장기교육생 128명 중 60여명이 지역에 정착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순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장기교육은 순창의 귀농정책 소개부터 영농방법, 지역사회 알기 등 귀농의 걸음마에서 안정적 정착까지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다. 6주간 순창귀농귀촌센터에서 머물며 교육을 진행하는 실질적 귀농 교육으로 수도권 예비 귀농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텃밭실습, 하우스 만들기, 자연축산 및 친환경농업, 순창작물 실습, 귀농선배와의 대화, 벼농사와 마을살이, 지역민 네트워크 등을 배울 수 있다.

올해에도 실질적 정착을 높이기 위해 2회 30명을 대상으로 한정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춘향제 '팡파르' … '세기의 사랑' 느껴보자

7일까지 진행

올해로 87회를 맞이하는 춘향제의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3일 저녁 7시 30분부터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2일 춘향선발대회를 시작으로 7일까지 펼쳐지는 춘향제는 4개 분야 24개 종목으로 춘향제향, '세기의 사랑' 공연예술제, 사랑을 위한 길놀이 춤 공연 '이판·사판·춤판', 지금은 춘향시대 등 춘향전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사랑체험마당, 농경문화체험 등 가족들과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올해 춘향제 개막공연은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일반평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인 '오늘이 오늘이소서'를 통해 남원 축제의 노래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하며 개막식이 시작된다.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행사는 작년에 호평을 받았던 사랑춤의 시연인데, 사랑의 등불행렬이 개막식장에 도착하면 사랑춤을 추며 관광객들과 내빈들 모두 함께하는 사랑춤 무대를 즐길 수 있다.

불꽃놀이 행사는 오후 9시 40분부터 10여분간 승사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밤하늘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불꽃놀이처럼 축제의 밤을 더욱 뜨겁게 할 홍진영과 소나무, 브로맨스, 세븐어클락, 배다혜 등 출연하여 다양한 장르별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남원=유영철기자

남원시, 한눈에 볼수있는 관광거점시설 조성 착수

남원시가 새로운 관광거점시설 조성에 나선다.

시는 2일 이환주시장을 비롯한 관광, 건축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다움 라키비움 건립' 설계용역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남원다움 라키비움(Larchiveum)은 가장 남원다운, 남원스러운 이야기를 담은 관광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 지방비 15)을 투입해 광한루원 주변 고샘검멀길 15-5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을 한 장소에 담아 관광객에게는 남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관광경험을 지역주민에게는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건축물 디자인 컨셉, 평면계획 등 건축부문과 운영에 필요한 전시물 공간구성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건축물의 형태는 남원만의 전통과 문화를 집목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남원 고유의 이미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임실군, 인하지구 260필지 결정

임실군은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사면 안하지구 260필지 96,372.6㎡의 경계를 결정했다.

2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1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경계를 설정했으며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시, 공동주택 4억5천만원 지원

남원시는 관내 21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최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된다.

남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총 129개 공동주택 단지에 20억4800만원을 지원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1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10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구강보건사업 '큰 호응'

임실군이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2일 은빛경로대학을 찾아 어르신 13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칫솔질 교육 비롯해 불소겔도포를 실시했다.

또한 생활태도 개선일환으로 틀니사용과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구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로당, 노인대한 등을 방문해 총 768명을 대상으로 스켈링, 교육, 불소도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구독문의 288-9700